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전담신부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   오후 3시	고해성사   오후 2시 30분	성당주소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톡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건
(폴더 4번) Come As You Are	(폴더 7번) 주여 나를 받으소서	(폴더 13번) 마음을 드높이	(폴더 11번) 순례자의 노래

제 1독서 | 지혜서 4,7-15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우)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좌)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우)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 로마 6,3-9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늘에서 구세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5,1-13

<위령 감사송 1: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희망>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  
세상에서 갇히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 오늘의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 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 교부들의 성경 주해

### <기름이 나타내는 것>



등을 가진 여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슬기롭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볼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름이 나타내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것, 참으로 지극히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쟁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1코린 13.1). 사랑은 ‘다른 것들 위에 있는 것’이며, 기름으로 표현되기에 합당합니다. 물 위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위에 뜹니다. 기름 위에 물을 부어도 기름이 위에 뜹니다. 여러분이 보통 섞는 순서대로 섞어도 기름이 제일 위에 뜹니다. 순서를 바꾸어 섞어도 기름이 제일 위에 뜹니다.

- 아우구스티누스 「설교집」 93,4

### <각자의 등을 챙긴다는 것>

슬기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나, 그리스도 재림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깨울 모든 사람이 먼저 겪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죽음으로 무력하게 된 모든 이는 깨어나서 심판자 앞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것을 처녀들이 ‘저마다 등을 챙겼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 삶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요약한다는 뜻입니다. 부주의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심지가 다 타 버린 것처럼 어지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마태오 복음 단편」 280

혼인성사 주례를 부탁받아 강론을 쓰게 되면 항상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결혼하는 이들의 사랑의 깊이를 사제로서 감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숭고한 것임을 어렵잡아 짐작하지만, 제자들과 신자분들을 사랑하지만, 오롯이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혼인 강론을 준비하는데, 본당 부임 시절 신앙학교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자 서둘러 찾아봤지만 지갑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소리는 거세졌습니다. 더 예쁘고 좋은 지갑을 사주겠다고 달래봤지만, 여전히 울음은 계속됐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지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 아이가 던져놓은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색이 완전히 바랜 초라하고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갑을 받아 들고 웃었고, 저는 그 환한 미소를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에게 사랑이란 뜨거운 감정도, 떨어지기 싫은 절절한 마음도, 두터운 신뢰도 아닙니다. 만약 사랑을 이러한 것들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변할 것이고 계산적으로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토록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자녀를 낳고 갈등을 감내하며 한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손때가 가득한 물건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낡게 되며 값어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깨끗하고 세련된 외양도, 높은 가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사랑이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오롯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지갑을 잃어버리고 엉엉 울던 아이의 눈물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갑을 사주겠다고 위로하던 제 마음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남녀는 서로를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반쪽으로 혹은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신 것이며, 이를 통해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 하느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 인간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남녀는 창조주의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로 상대를 나를 위한 존재로 여겨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않는지요. 그럴 때는 다시금 사랑의 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며, 그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느님의 부르침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공지 사항

### 1. 11월 식사 및 나눔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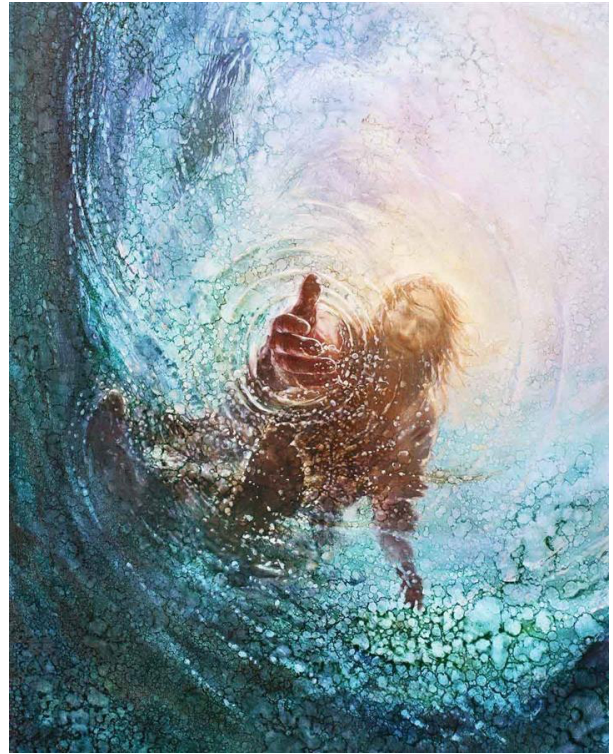
-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 다음 간식나눔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 나눔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 여정 '시즌 6' - 영적독서 모임 안내

- 신청해 주신 책은 다음주 미사 후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적독서 모임'은 11월 18일(화)부터 시작합니다.
-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이 끝난 후 바로 시작됩니다.

\*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주기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마태 14,31)

- 김용성 작가

#### | 미사 참례자 수 |

10월 19일	유아·청소년: 23명	성인: 47명
10월 26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46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1월 2일)	루카반
다음주 (11월 9일)	마르코반

####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25일 ~ 11월 1일)

봉헌금	\$ 245				
교무금	\$ 950				
구민식	권묘순	김천주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김건혜	허준	남궁영근		

####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